

Analysis of Existing Polici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Female Farmers in Rural Areas Facing Population Extinction and Aging: Focusing on Supporting Female Farmers

Jongkyeong Park* & Geunyo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link to policy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in rural areas. This study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projects for female farmers through business status and analysis. First, population extinction and aging are serious in rural areas. Second, the role of female farmers is very important due to population extinction and aging in rural areas. Third, the position of female farmers in rural areas must change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Fourth, support policies for female farmers to be economically active should be support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on female farmers' policy projects,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develop agriculture and rural areas, meaningful results will be drawn that the region, environment, budget, and distribution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n the female farmers' policy projects. Through these studies, it is hoped that the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growth of female farmers, play a central role in rural areas, and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Key Words: Population Aging, Female Farmers, Rural policies, Women's Welfare, Population Extinction

□ 접수일: 2024년 4월 15일, 수정일: 2024년 4월 26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8일

* 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First Author, Doctoral Course, The Univ. of Seoul, Email: jkpark@uos.ac.kr)

** 공동저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Co-author, Master's Course, Soongsil Univ., Email: gykim@soongsil.ac.kr)

I. 서론

농촌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 및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 농촌의 경우,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업 생산력 유지 및 농촌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여성, 특히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농촌사회의 재생산 및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생산적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농촌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역할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와 제도적 틀 안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에서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맞는 지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서의 주체적인 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이 더 확장되고, 역할과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을 이끌어갈 중심축인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활동에 따라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기존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중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제약 요건을 파악하고, 이런 제약 요건을 해결하면서 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역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기존정책과 가치평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의 역할의 경제, 문화 중요성을 밝히는 한편, 농촌에서 역할에 필요한 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 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II.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인구소멸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역할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이에 맞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모색하는 데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역할 중요성의 주요 배경을 파악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과 의미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성과를 탐구하여 정책적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I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 농촌 인구소멸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대두배경

농촌에서의 인구감소 추이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중에 소도시, 농촌의 소멸위험이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농촌은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지역의 구조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농가인구 감소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농가 수는 138.3만 호에서 103.5만 호로 감소했으며, 동 기간 농가인구는 403.1만 명에서 231.4만 명으로 감소했다(통계청, 2021). 농촌의 인구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더 이상 청년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구소멸과 농촌구조 붕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노동 부족은 여성 농민들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는 측면으로 상당 부분 해소 되어 왔다(이수미 외, 2021).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의 영역에서 생산 담당하며, 경영의 주체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농가 인구 가운데 여성 농민 수가 10% 증가하면 농가 소멸 위험지수는 22% 감소한다(강혜정, 2019). 그런데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25~34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상황이다. 농촌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농촌에 유입이 급감에 따라 기존 50~60대의 농촌 거주 여성들의 노동의 대체할 인력이 부재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역할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다양한 역할과 지위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농가 전업주부, 농업생산 참여 여성, 농촌부녀자, 농촌 여성, 농외 취업 여성, 농가 소속 자영업 여성, 여성 농민, 여성농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개념들이다(김경미, 2005). 작스(Sachs)는 여성농업인을 보이지 않는 농민들(invisible farmers)이라고 명명함으로써(Sachs, 1983) 농민의 범주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박민선·정숙정, 2022). 또 오늘날의 여성농업인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 개선, 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6차 산업의 증가로 활동 분야 확대되고 있다(강혜정·마상진, 2007).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업종사인구의 48.2%, 농업 주종사자의 50.7%가 여성으로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농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한국 농업의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농촌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이 소외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박민선·정숙정, 2022). <표 1>과 이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농촌에서의 위치는 정책결과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가 적은 편이며,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적극적 반영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고도화된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평가절하로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만큼 노동의 대가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봉건 의식의 잔재로 농가경제를 담당하면서도 경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김경미, 2005). 농촌에서 정책 결정에 적극적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고도화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분류 기준

학자	역할/ 지위분류	분류기준
정기환(1998)	① 보조적 영농종사자 ② 전문적 농업경영인 ③ 자영업 및 전문직 ④ 전업주부 ⑤ 농외취업 주부	농업노동력 참여구조,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 기술 수준 농작업 기계화 접근성 여성의 의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필요
김영옥·김이선(1999)	① 여성농업경영주 ② 농업경영주의 파트너 ③ 농업노동자 + 농업보조자	농사일에 대한 의사결정권, 농업종사 여부
김주숙(1999)	① 여성농민 ② 농가 전업주부 ③ 농업생산참여 여성 ④ 농외취업 여성 ⑤ 농가소속 자영업 여성	* 여성들의 직업적 분화에 대한 분석 필요성 지적

3. 농촌에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가사 일까지 담당하는 등 그 부담이 증가했다(김경미, 2009). 구체적으로 식품 소비의 서구화에 따른 농업생산구조 변

화가 일어나면서 양곡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경종농업은 쇠퇴하는 반면, 축산, 과수, 채소 등의 시설원에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마상진, 2007). 스마트팜, ICT 융복합 농업기술의 도입으로 과거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력의 투입보다는 체계를 운용하느냐 척도에 따라 농업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 같은 소비 형태의 변화와 농업생산시스템의 변화로 과거 노동력의 투입 여하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노동력보다는 섬세한 여성에게 적합한 원예작목과 스마트팜 ICT 융합 기술 등이 부상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재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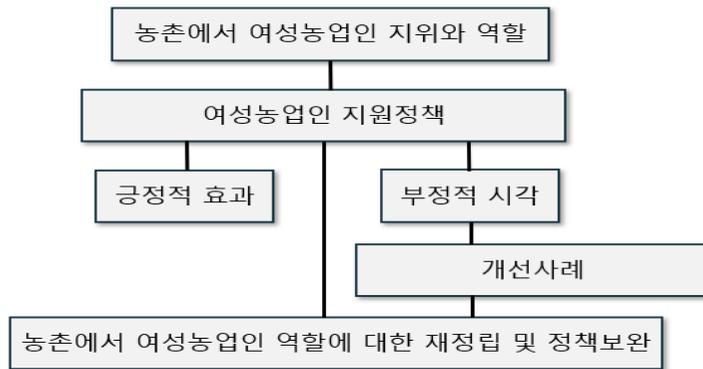
4.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대두배경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농업과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 과중과 역할 부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농업인 농촌에서의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겪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위 향상 등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의 생활에 있어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의 부담 경감 및 여가문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한지영 외, 2022).

IV.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추진 과제가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 연구를 위해 기존 문헌을 통해 수집하고, 2차로 기존 문헌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지원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현황

1) 여성농업인 정책 로드맵

국내에서 여성농업인의 현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에 농림부 기획관리실 소속의 여성정책 분야 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0년에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01~'05)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김지훈, 2017). 이에 따라, 2001년과 2002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00년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2020년의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이다. 제5차 기본계획('21~'25)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MAFRA 202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자료집 '모아 모아 한눈에'(MAFRA 2023)과 지자체 특화 관련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여성농업인정책 추진경과('18년~'20년)¹⁾

연도	주요내용
1998	-3월 기획관리실 소속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2024), 여성농업인광장, <<https://www.mafra.go.kr/woman/1180/subview.do>> (2024. 4. 22. 검색).

2000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01~'05) 수립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 등 실시
2001~2002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04	-8월 농업구조정책국 소속 여성정책과로 개편
2006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06~'10) 수립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결혼이민여성 지원 등 추진
2008	-2월 29일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으로 개편
2009	-10월 2일 농촌사회과로 개편
2011	-6월 15일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로 개편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 수립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인력 육성, 삶의 질 향상, 정책인프라 강화 등 추진
2013	-3월 23일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9월 12일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201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6~'20) 수립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직업역량 강화,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주체양성 등
2019	-6월 27일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 수립 -양성 평등, 직업·사회 역량, 복지 향유 및 건강, 지역공동체 활성화, 미래인재육성

3.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정책

1) 영농여건 개선 교육

영농여건 개선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은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농작업 편이 장비 사용 방법 및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통해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농여건 개선 코디네이터(강사) 인력 육성 및 찾아가는 농작업 편이 장비 교육,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가 있다.

2)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

청년 여성(19세부터 39세까지)에게 농업·농촌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의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속 단계 귀농·귀촌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농촌을 정착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은 총 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 3〉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현황('23년)

기관	교육명	교육내용	운영월	계획인원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농업인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및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	4~11월	25명
유통교육원	여성농식품유통 리더십양성	여성농업인 리더 육성과 여성의 역할, 기획, 마케팅, 여성리더와의 대화 등	2~11월 (17기)	25명
귀농귀촌 종합센터	기본공통(여성) 강의	'농촌여성 삶의 이해'와 여성농업인으 로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교육	6~10월 (3기)	180명
	유형특화(여성) 강의	귀농특화 및 귀촌특화 교육	7~11월 (3기)	300명
농협	농축협여성리더 어울림과정	여성농업인(조합원) 역량강화 및 양성 평등 의식제고	1~12월	202명
	농축협여성리더과정			80명
	여성농업인역량 강화과정			77명

4)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여성농업인에게 식량·원예·산림·축산 등 품목 기술, 농식품 가공·유통, 농기계, 전문경영, 특허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교육 등을 제공하여 전문 농업역량을 강화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사례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예로, 선진 농업 해외 연수, 이틀간의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 여성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교육 제공이 있다.

4. 정책·재정 지원정책

1) 여성농업인 우대 정책(가점부여)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반 구축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에게 우선 추천하고, 양성평등 교육 및 부부 공동 경영협약 체결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하였다.

〈표 3〉 청년농업인 창업 농지·자금 지원 확대 현황²⁾

지원항목	2023년	2024년
농지지원	5,534억원	1조 2,413억원
자금 대출(우대보증 한도)	3억원	5억원
초기소득 선정인원	4천명	5천명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급자리)	전체 9개 지구	전체 17개 지구

5. 농업 기술 및 인프라

1) 농기계 개발 및 임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표 4〉 농기계임대 사업소 지원 현황('23)

(단위: 개소)

시·도	시·군·구 지원현황
부산(2)	부산, 기장
대구(2)	달성, 수성
인천(3)	강화, 옹진, 인천
광주(1)	광주
울산(1)	울산
세종(1)	세종
경기(17)	화성, 용인, 연천, 안성, 이천, 광주, 양평, 파주, 양주, 평택, 포천, 김포, 여주, 수원, 고양, 가평, 남양주

2) 농림축산식품부(2024), 청년농 창업 위한 농지·자금 지원 확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https://www.mafra.go.kr>(2024. 4. 13. 검색)>.

강원(18)	춘천, 인제, 영월, 화천, 평창, 양양, 홍천, 정선, 횡성, 강릉, 삼척, 양구, 철원, 동해, 원주, 태백, 속초, 고성
충북(11)	옥천, 충주,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제천, 괴산, 단양, 청주, 음성
충남(15)	보령, 서천, 천안, 금산, 부여, 홍성, 논산, 예산, 태안, 공주, 아산, 당진, 서산, 청양, 계룡
전북(14)	완주, 익산, 장수, 진안, 정읍, 남원, 무주, 고창, 김제, 군산, 임실, 순창, 부안, 전주
전남(21)	장성, 해남, 순천, 강진, 나주, 담양, 신안, 무안, 장흥, 진도, 곡성, 영암, 여수, 광양, 보성, 구례, 화순, 고흥, 영광, 함평, 완동
경북(22)	김천, 상주, 문경, 성주, 영주, 봉화, 고령, 군위, 구미, 영천, 의성, 청송, 경주, 영양, 포항, 경산, 울진, 칠곡, 안동, 청도, 영덕, 예천
경남(17)	합천, 남해, 의령, 사천, 밀양, 창녕, 김해, 양산, 함안, 산청, 함양, 거제, 거창, 창원, 고성, 하동, 진주
제주(2)	서귀포, 제주
계	147

※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음.

2) 농식품 모태펀드

농식품 모태펀드는 우수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투자조합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투자조합이 나눠 가지고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주(파트너)관계가 성립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함께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농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6. 복지 증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이 검진은 여성 농업인에게 맞춤형 건강 검진을 제공하여,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검진(2년 주기) 지원한다.

2)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 병원 치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수행할 수 없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영농 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공동경영주 포함)

농업 경영정보 등록제도는 부부 농업인 중 배우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동경영주 개념을 도입한 사업이다. 이 제도는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등록을 통해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도록 한다.

2)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 행사는 개회식, 여성농업인 공연, 이웃사랑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성과를 축하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V. 정책평가

1. 여성농업인 정책 긍정적 효과

1)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영농 기술 향상과 농업 관련 지식습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최신 농업기술과 글로벌 농업 트렌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하게 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2) 복지증진

복지증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와 영농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중에 식사 준비 부담을 줄여주어 농업인의 건강 관리 및 문제와 영농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하게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지위향상

공동경영주 등록제도와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그들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농촌 사회 내에서의 평등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평등한 환경에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인다.

2. 여성농업인 정책 부정적 시각 및 개선 사례

1) 부정적 시각

(1) 접근성 문제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여성농업인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역별 농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을 통해 농업인들은 필요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맞춤형 부족

제공되는 지원사업이 모든 여성농업인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하고, 특정 그룹의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지원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특화 작물 재배 기술과 직접 마케팅 전략을 교육함으로써 실제 농업 환경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3)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

일부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지원사업의 성과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조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4) 자원의 한정성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 인해 모든 대상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선별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경상북도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성하고, 농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개선방안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그들의 역량 강화,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개선,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맞춤화, 장기적 효과의 검증,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의 확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포괄적 접근성 향상

여성농업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농촌지역 여성들의 교육, 건강검진, 영농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강원도 농업기계 119’ 애플리케이션 앱을 활용하여 농업기계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앱은 화상으로 영농현장의 농업기계와 농업 전문가를 연결해 고장 진단과 긴급 조치 요령 등을 지원함으로써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여성농업인의 특성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필요와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³⁾에서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유기농업의 전문지

3)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24), <<http://cnnongup.chungnam.go.kr>(2024. 4. 13. 검색)>.

식을 갖춘 고급 인력을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는데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맞춤형 정책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지속가능한 교육 및 역량강화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이 최신 농업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⁴⁾에서는 디지털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웹 기반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기술 적응력을 강화해야 하는 사례와 같이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4)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 세제 혜택, 영농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공동체 기반 접근 강화

농촌 공동체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VI. 논의

한국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공식적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다. 그 해에는 처음으로 농림부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 담당관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01~'05)을 수립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고, 2001년과 2005년에는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4) 경상북도농업기술원(2024), <<https://www.gb.go.kr>(2024. 4. 13. 검색)>.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농촌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및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시행 중인 한국의 여성농업인 정책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며, 기존 정책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시기이다. 여성농업인의 주요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초기에는 농업기술 교육에 국한된 기초적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과거 여성농업인 정책은 주로 농업기술 및 생산량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 및 생산 증대 지원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촌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강조되었다.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은 생산량 증대에서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여성농업인은 점차 특성과 요구에 따라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을 '수요 맞춤형 분야별 교육'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대부분이 농업기술 및 생산량 증대 교육이었다. 초기에는 농업기술 및 생산량 증대 지원이 주를 이루었지만, 농촌 여성이나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도입되며, 이들이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증가하였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점차 삶의 질 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농촌 여성을 농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노령화와 재배 작목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마을 및 지역의 리더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확대는 농촌 여성을 인구소멸과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에서 여성복지 관련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기술 교육과 마을 주민 간의 이해 교육,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마을 특화사업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동등하게 인정받는 농촌 사회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농업인 정책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여성농업인 정책은 주로 단편적인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와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역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VII. 결론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그 강점과 한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모아 모아 한눈에’ 문서들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적, 방법, 대상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시각 및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이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적 및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접근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정책의 대상, 목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 방향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정치적 결정자로서의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교육 및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각 정책사업은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구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촌 거주 여성이 인구소멸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인정받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과거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생산량 증대에 주요 중요성을 두었지만, 여전히 농촌사회에서의 결정 보조 주체로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부족하다.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구조개혁 및 복지 측면을 간과할 경우, 농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개별적인 문제 또는 농촌에서의 역할 수행 실패로 치부될 수 있다. 인구소멸과 노령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여성농업인에게 제공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농촌에서 여성이 농업 및 농촌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은 적절한 정책사업의 부재로 해석될 경향이 있다. 이는 농촌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방증한다. 또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비주류로 여성이 농촌 보조자의 역할로 평가받으면서, 주류 문화에서 지배적 위치는 지속되지만 농촌 여성은 여전히 농업과 농촌사회에서의 보조자 역할로 머물게 된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여

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을 중심적 가치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에서의 주요 역할을 주체자로 나서는 것은 점차 완화될 것이지만, 서서히 농촌의 중심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에서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재분배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해서 여성이 농업과 농촌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소멸과 농촌의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겪는 구조화된 틀에 벗어나지 못한 사회구조 체계의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으로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결여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조, 제도, 거시적 측면에서 보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개선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농촌의 여성들이 주체적 역할로 농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대상을 농촌의 비농업인들을 포함하여 전체 여성 농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으며 그들의 사회적 노동의 기여가 가족 내외부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근거가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Park & Jung, 2022).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촌경제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다 비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모든 농촌 여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농촌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전체 농업 섹터의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특성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책의 다면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지난 시기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여성농업인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문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포괄적인 효과와 연계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다 종합적인 지원 정책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2024), <<http://www.ares.gangwon.kr>(2024. 4. 13. 검색)>.
- 강혜정·김윤희·박서윤·전남대학교(2019),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 강혜정·마상진(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2012),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 과제, **젠더리뷰**, 27: 52-58.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2024), <<http://www.gb.go.kr>(2024. 4. 13. 검색)>.
- 고운미·김경미(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1): 47-64.
- 김영옥·김이선(1999), **21C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숙(1999),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역할 정립 및 사업 추진방향,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방안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95-104.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스마트팜 코리아, <<http://www.smartfarmkorea.net> (2024. 4. 13. 검색)>.
- 농림축산식품부(2024a), 2024년 보도자료, 청년농 창업 위한 농지·자금 지원 확대, <<http://www.mafra.go.kr/>(2024. 4. 13. 검색)>.
- 농림축산식품부(2024b), **모아모아 한눈에**, 2024년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 박민선·정숙정(2022), 인정투쟁에서 법적 투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방안, **농촌사회학회지**, 32(1): 215-228.
- 이수미(2021), **2020년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 이혜인·박영구·김호(2021),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충청남도의 행복바우처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9(2): 173-185.
- 정기환(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숙정·최경화(1998), 농업생산에서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여성농민단체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 정숙정·최경화(2022), 가업승계농 육성에 대한 여성 농민의 의사 결정 요인, **농촌사회**, (1): 157-188.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24), <<http://cnnongup.chungnam.go.kr>(2024. 4. 13. 검색)>.

최정신·최윤지·손주리·박용규(2023),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생활 균형 영향 요인 연구: 사회적지지와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4(4): 689-704.

통계청(202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세종: 통계청.

한지영·남중수·김용·김동주·최정신(2023), 여성농업인 일·생활 분야 지원 정책 요구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4(3): 475-494.

Sachs, C. E. (1983), *The invisible farmers: Women in agricultural production*, Rowman & Allenheld Pub. Inc.

【국문초록】

인구소멸과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존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중심으로

박 종 경 · 김 근 영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지원사업에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지원사업을 사업 현황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제시 한다.

연구 내용: 첫째,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농촌에서는 심각하다. 둘째, 농촌에서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농촌에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넷째, 여성농업인이 경제적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의 질적연구를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서 지역, 환경, 예산, 배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농촌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하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핵심어: 고령화, 여성농업인, 농촌정책, 여성복지, 인구소멸